

科学技術의 革新을 통한

— 自由의 품으로 돌아온 亡命科學者의



閔寬植 會長

존경하는 李正五科學技術處長官, 내외귀빈, 그리고 국내의 과학기술인 여러분!

오늘 第8次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 개막에 즈음하여 본인은 大會長으로서 멀리 歐洲地域으로부터 모국을 찾아주신 과학기술인과 가족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날 일시적이거나 北韓共產集團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신 우리 亡命科學者 여러분이 이번에 가족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2백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그 숭고한 自由民主精神과 勇氣에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周知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종합학술대회는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지역별, 隔年制로 참가하여 국내과학기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유일한 學術祭典으로서 어느덧 第8次大會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歐洲地域에서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참가하여 人類福祉 向上을 위한 세계의 最尖端을 달리고 있는 과학기술과 지식을 기탄없이 털어놓고 토론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촉진에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經濟發展을 이룩함에 있어 크나큰 役割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해와 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백75억弗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는데 음지에서 크게 공헌하였음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國력신장의 關鍵이 되는 기술자립과 科學立國이라는 국가적 召命을 조용히 실천하는 선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투자는 그 성과를 하루아침에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어느 분야 보다도 懷妊期가 길다는 점을 점차 瀟得하게 되어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민간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많은 연구개발비를 割愛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때문이며 國家百年大計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石油波動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불황은 우리와 같은 賦存資源이 없는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창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高度産業時代 이뤄야

崇高한 自由民主精神과 勇氣에 敬意—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을 벗어나서 “第5共和国”의 탄생과 함께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주인공이었던 우리가 80년대에도 기필코 기술혁신을 통한 고도산업화시대를 이룩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能動的이고 進取的인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것을 발명하고 또 발명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막중한 우리의 責務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80년대 韓國機械工業의 展望」이라는 Work-Shop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육성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초와 응용등 8개분과로 나누어 약 100편의 논문을 폭넓게 다룰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일이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학술논문의 발표외에도 전문분야별로 관련기관과의 워크·샵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연구기관과 산업계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멀리 歐洲地域에서 오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유익한 모국방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변모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두루 살피시어 즐거운 추억이 남는 유쾌한 旅程이 될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앞으로는 地域別 隔年制로 실시해오든 이 대회가 在美, 在歐할것없이 전세계 도처에 흩어져있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 전부가 일년에 한번 조국 땅에서 뭉쳐서 참다운 세계적 綜合學術大會가 열릴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 실현하는것이 그동안의 체험에서 가장 바람직 한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과총은 앞으로 전력을 경주하려 합니다. 이는 해외에 계신 우리 과학기술인의 전폭적 협력과 정부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또한 절대로 요청되는바 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각부처, 在歐科聯 그리고 협찬기관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4월 7일

第8次国内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

大會長 閔 寬 植